

八日(考古美術部)

母系社會의 研究

琴湖江流域의 無紋土器文化

八、九世紀 摩訶毘盧舍那佛像에 對하여

統一新羅時代의 蓮華紋에 對하여

天原 大坪里寺址 石塔材

木造建築造營의 數理應用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佛蘭西第三共和國 파리市內公共建物內의 壁畫

李光奎

尹容鎮

文明大

金和英

李殷昌

申榮敷

李洪烈

林英芳

朴來卿

琉球에서 發見된 「高麗瓦匠」在銘瓦

第九卷 第七號 通卷九十六號

李 弘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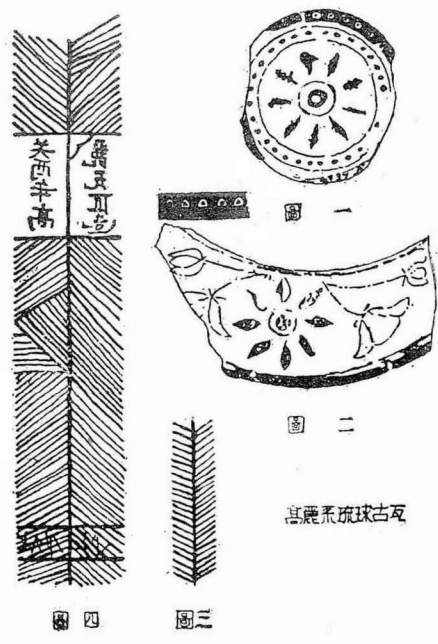
琉球의 主島 沖繩의 浦添(우라소에)의 古城址에서 「癸酉年高麗瓦匠造」(二行)의 在銘瓦가 發見된 것은 이미 一九一一年에 刊行된 伊波普猷氏의 「古琉球」에 紹介되어(同書, 土塊石片錄 上) 日本學界에서 그 年代 推定에 對해서 論議된 바도 많았으며 그 癸酉年을 琉球第二王朝의 初代 王인 英祖治世의 癸酉(一一七三, 高麗元宗 一四)로 보는 것으로 諸說은 歸一되었다. 그러나 이 說을 實證의 으로 沖繩島各遺蹟에서 發見된 瓦類의 總括的인 研究에 의하여 確證된 것은 一九六二年度版 日本의 「文化財要覽」에 執筆한 大川 清氏의 「琉球古瓦調査抄報」였다. 지난 五月에 처음으로 訪韓한 黑板昌夫教授(元 日本의 文化財保護委員會의 史蹟課調査官)로 多年間 있다가 停年退官을 하고 지금은 國士館大學教授의 敎示에 의하여 이 事實을 알았고 最近에 同氏로부터 그 拔刷을 보내와서 더욱 詳細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기에 그것을 紹介하고자 한다.

大川氏(文化財保護委員會 調査官)는 一九六〇年 八月二十五일부터 一

第九卷 第七號 通卷九十六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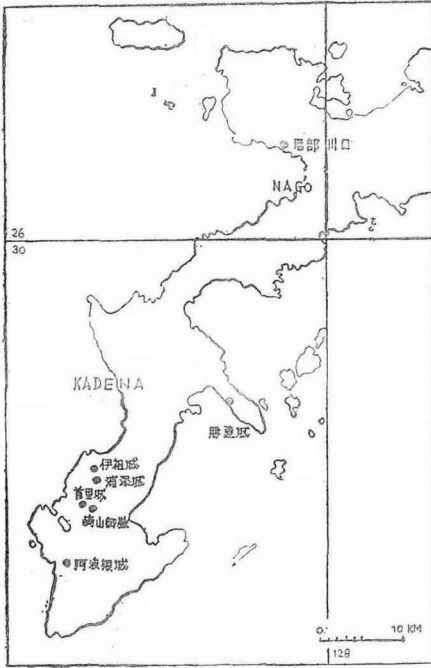
個月 동안 本島各地의 古瓦出土地의 遺物을 調査하였는데 역시 南部那霸市 地域에 密集하여 首里城跡을 中心으로 그 北方의 浦添城、伊祖城、東쪽의 崎山御嶽、南方의 阿波根城의 諸遺蹟이 分布되고 여기서 東北으로 遷된 本島의 中部(中頭郡)에 東南으로 突出한 半島에 勝連城이 있으며 北部地帶의 西北으로 突出된 半島에 屋部川口의 遺蹟이 있다.

本島의 古瓦는 大略 三期로 나누어 그 系譜를 생각할 수 있다. (一) 가장 오래된 時期의 것은 浦添城跡과 首里城跡의 西便「아자나」에서出土된 「癸酉年……」在銘瓦와 一聯의 瓦種(鎧瓦、宇瓦、男瓦、女瓦)이며 그 후 琉球人이 그 技術을 배워서 燔瓦한 二次的인 一聯의 瓦類가 屋部川口、崎山御嶽、勝連城跡에서 出土하고 있어서 이것을 다 包含하여 高麗系古瓦로 編入하고 있으며 그것은 大體로 英祖王統期(一一六〇—一三五〇)로 보고 있다. 다음 (二) 察度王統(一一三五〇—一四〇六)에 屬하는 日本의 鎌倉期の 巴文瓦當系를 中心으로 하는 一聯의 遺品은 宋錢 및 洪武通寶(一一三八)와 鎌倉地域에서 많이 出土하는 菊花押文의 瓦器破片을 伴出함으로써 그 時期를 把握할 수 있어서 이것을 大和系(日本本土의 뜻)古瓦로 一括하였다. 그 후 琉球의 造瓦는 잠시 停滯하다가 明人 渡嘉敷三良가 渡來하여 (琉球國由來記)明式造瓦가 支配하여 一六五二年



에 圓覺寺東西의 御照堂을, 一六七〇年에 首里城을 瓦葺하는데 이 明式瓦를 使用한 것이 알려졌으며 그 후로는 이것도 次次 赤色の 島瓦로 되어 가는데 「乾隆三年」在銘이 나오고 있어서 第三期의 據點을 알리고 있다.

大川氏는 以上 三期의 古瓦를 또 分類하고 있는데 高麗系古瓦로서 가장 오랜 것으로 볼 것은 鏡瓦로서 그가 말하는 浦添城第一類를 치는데 灰褐色으로 잘 구운 것이며 文樣面은 徑約 一五·五cm, 內區에 花瓣九個를 配하고 中央에는 구멍이 있는 乳房狀의 蓮子一個가 있고 外區의 內緣에는 珠文外緣에 半圓形의 管文을 들렸으며 또 文樣面에 가까운 筒部(男瓦)上緣에는 外緣에 적은 管文보다 한 들레 큰 管文을 一列로 押印하고 있다(圖一). 宇瓦의 文樣面은 左右約 二六cm 上下約 二一cm의 幅이 넓고 中央에 鏡瓦와 같은 花瓣 八個를 配하고 中房은 乳房狀의 큰 蓮子一個를 配하고 있다. 그리고 中央의 花文左右에는 아래로 向한 開花의 側面을 優雅한 線으로 나타내고 그 兩端에는 역시 細麗한 曲線의 닝글이 붙어 있어 그 先端에 꽃봉우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文樣面에 가까운 平平한(女瓦)部分의 上緣에는 半圓形管文이 一列로 押印되어 있다. 또 이 宇瓦의 넓은 部分의 裏面(下部)에 例의 「癸酉」銘이



琉球古瓦出土地

적어 있는 것이다(圖二). 男瓦表面에는 羽狀押型文이 적혀 있고 裏面에는 布目이 보이며(圖三) 女瓦에는 「癸酉年高麗瓦匠造」의 銘文이 있는데 銘文은 押型의 一部로 되고 있으며 羽狀押型의 거의 中央部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押型文의 一部는 羽狀으로 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銘文은 左字로 되어 있다(圖四). 以上 가장 오래된 基本型만을 여기서 나타냈는데 後期的인 이 系統의 古瓦는 이와 같은 各文樣을 基本삼아서 變形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琉球가 入朝한 것은 高麗史 辛禑王十四年과 恭讓王二年에 察度王이 遣使한 記錄이 처음이며 이후 李朝實錄에는 頻繁히 傳해지고 있지마는 그 이전이라도 琉球가 高麗, 日本, 中國 사이에 끼어서 貿易에 한 구실을 해온 것은 李朝期와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民間貿易에는 文物的 交流가 隨伴되고 技術人의 往來도 있었을 것인데 高麗瓦匠이 멀리 琉球에 가서 그 技術을 傳하고, 그 證據로서 銘瓦를 남긴 것은 매우 興味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從來 古瓦의 研究는 三國, 新羅統一期에 集中되고 高麗期의 古瓦에 對하여서는 이렇다할 系統의인 研究가 없는 모양인데 將次 이와 같은 研究를 위해서 絶海の 孤島에 남겨진 이 一聯의 古瓦의 文樣은 重要한 資料를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察度王 以前에 琉球가 文化의 歷史를 시작한 것은 英祖王을 넘지 못함으로 癸酉年을 이와 같이 잡은 것은 妥當하다고 보며 文樣의 系統上으로도 그 手法을 傳한 것으로 보겠다.

瑞山 龍賢里出土 百濟金銅如來立像

李 殷 昌

一、序 言

一九六八年 四月에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普願寺址에서 金銅如來立像